

민족고전 《여지도서》의 편찬경위

김 송 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력사는 자연과 사회의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빛나는 투쟁의 력사이며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담긴 수많은 문화적재보를 창조해온 자랑스러운 창조의 력사였습니다.》(《김정일전집》 제13권 375페이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면면히 이어오면서 슬기로운 우리 민족이 창조한 문화적재보들 가운데는 민족고전 《여지도서》(輿地圖書)와 같은 지리서적도 있다.

민족고전 《여지도서》는 18세기 중엽에 이루어진 전국지리지로서 각 고을의 지도와 고을에 대한 기록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당시의 행정, 군사, 경제, 산업, 교통 등의 조직과 구성 등을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민족고전 《여지도서》의 편찬은 무엇보다 봉건국가가 중앙집권적통치기능을 강화하여 전국의 모든 지방을 보다 원만히 장악통제하려는 조선봉건왕조의 의도적인 목적과 관련되어있다.

원래 지도의 제작과 지리지의 편찬은 나라의 판도를 환히 꿰들고 전국가적인 행정체제와 방위체제를 확립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착취사회에서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체제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부터 조선봉건왕조는 성립초기부터 지리책의 편찬에 국가적인 큰 관심을 돌려왔다.

1424년 춘추관의 주관밑에 각 도별로 관하 고을들에 있는 옛 기록자료에 기초하여 새로운 지리지를 편찬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며 그에 따라 1432년에 전국가적인 종합지리책인 《팔도지리지》가 완성되어 세상에 나왔다.

《팔도지리지》의 편찬이후 봉건국가에서는 1454년 3월 새로 설치된 평안도의 4개 고을과 함경도의 7개 고을의 내용까지 보충하여 고을들의 연혁과 지리, 자연부원과 생산물, 공물과 부역 등을 모두 망라하여 반영한 《세종실록지리지》를 편찬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1468년 제2차로 전국적인 조사사업을 벌리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1477년 《신찬지리지》를, 1481년에는 《신찬지리지》의 군, 현항목들에 《동문선》의 사료들을 덧붙인 인문지리책으로서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다. 《동국여지승람》은 1499년에 수정보충되어 55권으로 다시 출판되었으며 1530년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증보되어 1531년에 간행되었다.

이렇듯 조선봉건왕조는 1432년부터 1531년까지의 100년기간에 여러차례 국가적규모에서 지리지편찬사업을 진행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는 종합적인 인문지리책을 편찬간행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 나옴으로써 국가적규모에서의 종합적지리지편찬은 일단 완성되었으며 지방에 대한 봉건국가의 행정체제와 수탈체제도 비교적 정연하게 확립되었다.

그러나 그후 임진조국전쟁과 청의 침입으로 많은것이 변한 조건에서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자료만 가지고서는 전국의 실정을 환히 꿰들수 없었다.

한편 김효원과 심의점의 알뜰으로 하여 시작되었던 동서분당이 사색당쟁으로 더욱 고조되었고 숙종 이후시기부터는 로론파에 의한 정권장악과 그를 반대하는 다른 당파간의 추악한 싸움이 그칠새 없는 속에서 왕위에 오른 영조는 당파를 해소하기 위한 《탕평책》을 쓰면서 어떻게 하나 날로 쇠퇴되어가는 봉건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제도를 바로잡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것이 지리지였다.

그것은 지리지에 해당 고을들의 과거와 현재, 고정적이거나 가변적인 사적과 사실들이 집대성되어있는데로부터 지방고을들에 대한 봉건국가의 통치체계와 수탈체계, 군사통솔체계를 재정립하는데서 그것의 편찬이 자못 중요하였기때문이었다.

조선봉건왕조는 16세기 후반기부터 전국의 거의 모든 고을들에서 활발히 편찬된 읍지들을 모두 수집하여들임으로써 그에 기초하여 전국의 모든 판도와 고을들의 실정을 손금보듯 장악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1765년에 《여지도》를 찍어내도록 하고 각 도에서 가지고있는 읍지들을 모두 바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던것이다.*1 (《영조실록》 106권 41년 을유년 12월 을유일)

*1 命弘文館 印進輿地圖 各道之有邑誌者 并命裒集

민족고전 《여지도서》의 편찬은 다음으로 《동국여지승람》이 나온 후 200여년이 지난 조선에서 내용상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고 보충해야 할 대상들이 늘어난것과 관련되었다.

실례로 고을들의 연혁에서의 변화, 새로운 루정들의 건설, 자연지리적대상물들의 발견 등은 통치계급에게 새 지리지에 대한 편찬을 절실한 요구로 제기하게 하였던것이다.

영조 33년(1757) 8월 6일에 홍문관 수찬인 홍량호는 영조에게 지도의 중요성을 아뢰면서 색깔로 그 경계를 표시한 《삼국기지도》(三國基地圖)와 산천과 도로표시들이 치밀하고 백리를 한자로 축소한 자로 측량하여 거리의 정확도가 높은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를 바치였다.

그후 9일에 홍량호가 다시 《8도분도첩》(八道分圖帖)을 바치니 영조는 홍문관과 비변사에도 본을 떠서 그려 건사하도록 하였다. 홍량호는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보충완성하기 위하여 8도에 령을 내려 읍지를 올려오게 할것을 영조에게 청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량한(홍량호를 이르는 말-필자)이 말하였다.

〈신은 지도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은근히 생각하고있는것이 있습니다. 대체로 지도라는것은 나라에서 중히 여기는바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승람을 편찬한지 벌써 수백년이 넘다보니 그뒤의 연혁은 상고할데가 없는것만큼 계속해서 편찬하지 않을수 없지만 이것은 아직 경솔하게 논의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고을들의 읍지로 말하면 지도를 만드는 근본으로서 근래의 연혁을 상고할수 있습니다. 본 홍문관에서 8도에 공문을 보내어 여러 고을들에서 가지고있는 읍지는 등본이거나 인본이거나 론하지 말고 죄다 수집해서 올려보내게 할것이며 책으로 묶지 못한것은 당장 묶어 올려보내도록 해서 상고할 근거로 삼도록 하기 바랍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의가 아주 좋다. 즉시 시행할것이다.〉라고 하였다.》*2 (《영조실록》 90권 33년 정축년 8월 무진일)

*2 良漢曰 臣於地圖事 竊有所懷 夫輿圖者 有國之所重也 我國勝覽之纂成 已過數百年 其後沿革 更無所考 不可不續成 而此則姑難輕議 至於列邑邑志即輿地之本 挽近沿革可以考 徵請自本館移文 八道列邑之有志者 無論謄本印本并收聚 上送 其無成書者 即令修輯編成 上送 以備考據焉 上曰 所奏甚善 即宜舉行

봉건정부에서는 각 고을의 사료를 수집하여 검열하고 요강에 따라 편집해서 책을 묶는 방안을 세우고 각 도에 읍지를 바칠데 대한 명령을 내리었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고을마다 읍지편찬이 진행되고 이 과정에 《여지도서》가 편찬간행되게 되었다.

민족고전 《여지도서》의 편찬시기와 관련하여 《승정원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임금이 주서에게 지시하여 <동사보유>와 <여지도서>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였다. ... 신정상이 <동사보유>와 <여지도서>를 바치었다. 임금이 부제학에게 지시하여 <동사보유>와 <여지도서>를 읽게 하였다. 임금이 <여지도서>는 일찌기 인쇄본과 필사본으로 된것이 있는것을 봤는데 이것은 등사본이 아닌가고 물었다. 서명응이 최초로 홍량호가 홍문관 관리로 되었을 때 8도읍지에 대하여 진술하여 보고하고 수정하여 올렸기때문에 곧 인쇄본과 필사본이 있게 되었다는것, 그후 김응순이 관리를 할 때 고쳐 수정한것을 진술하여 보고드리였고 리은이 관리를 할 때 8도에 공문을 띄웠다고 말하였다. 또 그때에 자기가 그림을 첨가, 삭제하고 범례를 만들어 아래관청에 공문을 보낼 때 본 홍문관의 옛 전례에 홍문관 관리들에게 공문을 내려보내고 매번 한본을 하사하였기때문에 <여지도서> 2본을 올려와서 한본은 대궐에 들어가고 한본은 리은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그 리유로 자기가 그것을 얻었다고 하였다.

임금이 <여지도서>라는 이름을 서명응이 지은것인가고 묻자 서명응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주서에게 홍문관에 물어서 <여지도서> 한본이 거기에 있는지 알아보게 하였다. 신정상이 지시를 받들고 홍문관에 나가 알아보고 단지 읍지만 있고 <여지도서>가 본 홍문관에 없는 리유에 대해 보고하였다.*3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12월 초 8일)

*3 上命注書 持入東史補遺及輿地圖書 ... 臣貞相 進東史補遺及輿地圖書 上命副提學 讀東史補遺及輿地圖書 上曰 輿地圖書 曾見有印本有寫本 此是謄本乎 命膺曰 最初洪良漢 爲玉堂時陳達 八道邑誌 修正以上 此即有印本有寫本矣 其後金應淳 爲玉堂時 陳達改修正 而李滉爲玉堂時 行關於八道 故臣於其時 添刪圖錄 定爲凡例 下送於行關時 本館故例 發關儒臣 每以一件分兒 故其輿地圖書二本上來 一本內入 一本分兒李滉 故臣得之矣 上曰 輿地圖書 卿所名乎 命膺曰 然矣 上命注書出問于弘文館 輿地圖書一件 在本館與否知入 臣貞相奉命 出問于弘文館 則只有邑誌 而輿地圖書 則不在本館之由 仰奏訖

이 기록을 통하여 《여지도서》의 편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을 알수 있다.

첫째로, 《여지도서》의 편찬은 홍량호가 홍문관에 있을 때 영조에게 진술하여 8도읍지를 수정하여 올린데서 시작되었다는것, 김응순이 다시 영조에게 진술하고 수정하였으며 그후 리은이 8도에 공문을 띄워 이 사업을 계속하였고 그때 그밑에서 지도를 첨가 또는 삭제하던 서명응이 이 책을 《여지도서》라고 이름지었다는것이다.

그런데 이 기록과 같은 날짜의 실록기사에는 이에 해당한것이 없다. 실록기사에는 다만 홍문관에 명령하여 《여지도》를 인쇄하여 올리게 하고 각 도의 읍지들을 모아들이게 하고있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영조실록》 106권 41년 을유년 12월 을유일)

결국 《여지도서》라는 이름은 《여지도》(각 고을의 지도)에 각 고을의 기록이 첨부되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영조 33년(1757)부터 시작된 《여지도서》의 편찬이 영조 41년(1765) 12월에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다시 수정이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이 편찬시기에 대해서는 《여지도서》의 내용과 군, 읍의 승강관계로 밝힐 수 있다.

우선 《여지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 읍지의 편찬날자를 명기한 것은 2권의 《가평읍지》(加平邑誌) 마지막에 있는 기록이다. 이 기록은 영조 36년에 해당한다. 각 읍지의 호구, 전결, 부세관계의 문건은 거의 기묘호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호구장적에서 경기도 금천현(衿川縣)이 숙종 10년^{*4}, 충청도 회산군이 영조 32년^{*5}으로서 제외이다.(이것은 기묘호적이전의 식년조사를 그대로 임금에게 올린 것으로 보아진다.)

^{*4} 元戶一千八百七十三戶內(男三千三百二十二口 女四千四百四十一口 …)

^{*5} … 都已上三千四十二戶內(男五千二百十五口 女四千九百六十口 …)

식년으로서의 기묘년은 영조 35년(1759)이다.

이와 함께 고종 8년(1871)에 한종악에 의해 편찬된 순창(淳昌)읍지의 옛읍지 서문에 《생각컨대 지금임금 34년 무인에 여러 고을들에 읍지를 수정하여 올릴 것을 지시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해는 앞서 든 홍량호의 요청에 의하여 각 도 읍지를 임금에게 올리게 한 영조 33년보다 1년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임금이 임의로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군, 읍들의 승강을 중심으로 그 편찬시기를 밝혀보면 충주(충원), 영광, 춘천의 경우(아래의 표 참고) 각기 승강의 기간이 영조 31년(1755)에서 41년(1765)사이인데 이것은 《여지도서》의 기록과 일치한다. 특히 장연은 영조 40년(1764) 도호부에서 현으로 강등된 것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영조 40년 이전까지로 추정할 수도 있다.

도별	신증동국 여지승람	여지도서	대전회통 (1865)	승강기간	비 고
충청도	충주목	충원현	충주목	영조 31-영조 40 (1755-1764)	영조때에 세차례의 승강이 있었음
전라도	영광군	영광현	영광군	영조 31-영조 40 (1755-1764)	인조 7-16년간과 이 기간은 영광현이었음
경상도	함양군	함양 도호부	함양군	영조 5-정조 12 (1729-1788)	이 기간만이 함양도호부였음
강원도	춘천 도호부	춘천현	춘천 도호부	영조 31-영조 41 (1755-1765)	이 기간만이 춘천현이었음
황해도	서흥 도호부	서흥현	서흥 도호부	현종 12-영조 38 (1671-1762)	현종 12년 특별히 백년동안 현을 떨구도록 지시하였음
황해도	장연현	장연 도호부	장연현	광해군 15-영조 40 (1623-1764)	광해군 15년-영조 40년까지 도호부였음

한편 각 도 읍지를 임금에게 바치도록 지시한 것이 영조 33년(1757)이니 본 《여지도서》

의 각 고을의 읍지는 영조 33년에서 41년사이에 이루어진것이라고 볼수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 기묘호적을 놓고볼 때 대부분이 영조 36년(1760)이후에 수정편집되었다는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놓고보면 《여지도서》의 편찬시기는 영조 41년이후라고 볼수 있다.

《여지도서》는 《동국여지승람》과 마찬가지로 전국지리지로 편찬되었지만 각 고을의 읍지를 기초자료로 하고있다.

이런 견지에서 《여지도서》를 《동국여지승람》의 각 고을에 대한 수록항목과 비교해보면 《방리》, 《제언》, 《전결》, 《부세》, 《진공》, 《조적》, 《전세》, 《대동》 등 항목이 첨가된 반면에 《학교》, 《시문》 등의 항목은 비중이 약화되었다.

이로부터 이 시기의 읍지편찬은 고을의 연혁, 문물의 소개로부터 경제, 군사, 행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18세기 읍지의 종합적인 성격을 지닌 《여지도서》는 《동국여지승람》이후에 작성된 새로운 읍지편찬의 경향을 보여주고있다.

실마리어 여지도서, 신증, 읍지